

‘과밀’ 광주교도소, 해법 못 찾고 10년째 제자리

호남 유일 미결수용시설 부재…145% 초과 수용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 주민 반발로 사업 ‘올스톱’

광주교도소가 수용정원의 145%를 넘는 과밀 상태에 놓이면서 호남권 유일의 교정시설이 감당해야 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미결수용자를 전담할 구치소 신설이 인권 보호와 사법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신축 예정지인 북구 일곡동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4일 법무부와 전남광주통합법원,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광주교도소에는 수용정원 1560명을 699명 초과한 2259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45%에 달했다. 전국 평균 수용률(127%)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과밀한 교정시설이다.

광주교도소 과밀의 가장 큰 원인은 호남권에 미결수용자를 전담하는 구치소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교도소는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 1285명과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 974명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미결수용자의 재판 출석과 변호인 접견 등 사법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별도의 구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밀수용은 수용환경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원 5명 규모의 수용거실에 10명 이상이 생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교육·교화와 직업훈련, 의료·심리치료 등 각종 교정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광주교도소는 노인·장애인 전담시설에 이어 최근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까지 맡으면서 전문 처우 공간



남자 수용 거실 모습.

사진제공=법무부

확보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교정공무원들 역시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 일곡동 1~3 일원 국유지에 부지 15만6000㎡, 연면적 3만6686㎡, 수용정원 900명 규모의 광주구치소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40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은 2010년 신축계획 수립 이후 2021년 광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거쳤지만 예정 부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

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법무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 광주교도소 부지 내 증축이나 인접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4월에는 일곡동 예정지가 대규모 주거지역과 학교가 밀집해 있고 주민 반대가 거세다며 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현 예정지를 포함한 부지 재검토가 가능하라며 법무부와 광주시, 북구,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구는 지난달 광주시에 “일곡

동 1~3번지를 포함한 부지를 검토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일곡동 구치소 신축반대 대책위원회 역시 예정지를 포함한 모든 논의에 반대하며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고, 지역 시·구의원들도 주민 의견에 힘을 실고 있다.

법무부는 구치소 신설이 이뤄질 경우 광주교도소 수용률을 낮춰 교화 기능을 정상화하고, 미결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 접견권 등 기본권 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어린이집과 체육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 업체 우선 구매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광주구치소 신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과밀수용 해소와 미결수용자 인권 보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44	달출	19:32
해질	22:53	달림	12:09



광주		26~36
목포		26~33
여수		26~36
순천		26~36
구례		25~34
광주		26~33
해남		26~33
임도		26~34
흑산도		26~33
고흥		26~34
진남		26~33
진도		26~33

목포	미물(고)	06:15 / 18:53
	샘물(저)	11:31 / 23:54
여수	미물(고)	00:39 / 13:20
	샘물(저)	06:53 / 19:11

출소 한 달 만에 흥기 강도 50대 ‘징역 8년’

세탁소 업주 감금·폭행…추격 시민까지 흥기 상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세탁수선집 여성 업주를 흥기로 위협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데 이어 자신을 추격하던 시민까지 흥기로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세탁수선집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흥기로 위협한 뒤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탈의실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미리 준비한 정테이프로 입과 손발을 결박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세탁수선집을 찾은 20대 남성이 상황을 목격하자 A씨는 달아났고, 이를 뒤쫓아 제지하려던 남성에게 흥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A씨는 PC방에서 점돈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ATM 이용이 서툰 고령자를 속여 53만원을 송금받은 데 이어 택시 무임승차와 차량 사이드미러를 이용한 보행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여기가 무릉도원

4일 오후 전남광주통합법원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시민들이 상상마당 안개 분수원을 지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낭만·상생 가치 실현’ 광산뮤직온페스티벌 열린다

내달 19~20일 황룡친수공원…다이나믹 듀오 등 참여

전남광주통합법원 광산구 대표 축제인 ‘광산뮤직온(ON) 페스티벌’이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광산구는 오는 9월 19~20일 이틀간 황룡친수공원에서 제4회 광산뮤직온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연결도시 광산, 음악으로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공간과 문화,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고 낭만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피크닉 축제로 기획됐다.

광산뮤직온페스티벌은 단 3회 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전국적 음악 축제로 올라섰다. 올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특별상을 받은 데 이어, 광주특별시 축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얻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광산구는 음악과 소풍을 결합한 광산뮤직온페스티벌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다운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라인업부터 ‘역대급’이다. 대한민국 대

표 록밴드 ‘자우림’, 힙합의 전설 ‘다이나믹 듀오’가 헤드라이너를 장식한다.

올해는 1차로 발표된 이 2팀을 포함해 대한민국 최정상급 뮤지션 10팀이 축제 열기를 책임진다. 광산구는 추가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축제 현장을 뮤지존(주무대 구역), 플레이존, 투게더존으로 구성, 구역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첫날인 19일 오후 7시 개막식 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민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리마켓도 진행된다. 임정호 기자 ljh4415@

무등산 수만탐방지원센터~장불재갈림길 통제

안전사고 예방·탐방로 정비

무등산국립공원 수만탐방지원센터에서 장불재갈림길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정비 공사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3일부터 수만탐방지원센터~장불재갈림길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훼손된 탐방로를 정비하고 등산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통제 구간은 수만탐방지원센터~장불재갈림길 1.2km 구간이다. 공사 기간에는

장비와 자재 운반, 작업 인력 이동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통제 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전남광주통합법원 화순군에 위치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천왕봉을 중심으로 주상절리 등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갖춘 지역이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노후·훼손된 탐방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AI가 택시 ‘도어링’ 막는다…전남광주 전국 첫 실증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4일 전남경찰청,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남지부, ㈜에스라이팅과 ‘AI 기반 택시 안전하차 솔루션 도입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택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발생하는 ‘도어링(Dooring)’ 사고를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하차 솔루션이 전국 최초로 전남광주에서 도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4일 전남경찰청,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남지부, ㈜에스라이팅과 ‘AI 기반 택시 안전하차 솔루션 도입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전환경차자동차부품인증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4개 기관 대표와 실무

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AI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택시 승객과 운전자의 하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지역 법인택시 57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된다.

도어링 사고는 승객이 하차 전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결제와 전방 주시 등으로 우측 후방 사각지대를 살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륜차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충돌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하차 솔루션은 택시 우측 B필러(앞·뒷문 사이 기둥) 외부에 AI 영상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후방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방식이다. 승객이 문을 열기 직전 후방에서 이륜차나 자전거, PM 등이 접근하면 뒷좌석 디스플레이와 음성 안내를 통해 승객과 운전자에게 즉시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

실증사업은 전남지역 법인택시 57대

(운수회사 관리 차량 1대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비 1100만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남지부, 제작사가 공동 부담하며, 기기 가격은 대당 20만원 안팎이다.

오는 12일 제작사인 ㈜에스라이팅으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설치와 성능 점검을 마친 뒤 17일부터 본격적인 실증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주요 시 지역에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전남경찰청 등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이륜차·PM 접근하면 음성 경고…17일부터 시범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경찰과 택시공제조합에 접수된 사고 데이터를 솔루션 장착 전후로 비교·분석하고, 승객 대상 QR코드 설문조사를 통해 경고 알림의 효과와 이용 만족도도 함께 검증할 방침이다.

가두현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AI 기반 안전하차 솔루션이 이륜차와 PM 충돌사고를 줄이고 운수업계의 사고 처리 비용과 보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